

“행복한 여수, 주민 스스로 만들어요”

마을복지계획단 발족 국동·문수동 시범동 선정 주민 중심 복지공동체...과제 발굴 해결책 마련

주민 스스로 동네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여수 마을복지계획단이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12일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로 행정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이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이 발대식을 갖고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국동마을복지계획단 첫 발족 이후 두번째다. ‘마을복지계획단’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복지 의제를 직접 발굴, 논의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 주민의 어려운 복지 문제를 나눔으

로 실행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 중심 복지공동체다. 이날 발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마을복지계획단’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하생 소장(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토론회를 하며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문수동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직능단체회원, 다양한 복지종사자, 주민 등을 공개 모집해 30명의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했다. 나머지

25개 읍·면·동도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국동과 문수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 주민 욕구 조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담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실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권오봉 시장은 “이웃 분들이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형제처럼 살피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여수의 미래가 잘 그려질 수 있게 활동해주길 바란다”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이 최근 발대식을 갖고 워크숍을 열었다. 마을복지 계획단은 행정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여수시 제공)

고 당부했다. 김석호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을의 복지 의제를 깊이 고민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고흥군은 최근 통합브랜드 캐릭터 ‘노랭이’ 선포와 지역 온라인 쇼핑물 ‘고흥물’ 개장을 기념해 ‘고흥 농수특산물 온라인 마케팅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고흥군 제공>

통합브랜드 ‘노랭이’ 농수특산물 판촉 활용

고흥군, 지역 ‘고흥물’ 개장 등 기념 온라인 마케팅

고흥군이 군 통합브랜드 캐릭터 ‘노랭이’를 선포하고 지역 온라인 쇼핑물 ‘고흥물’을 선보이는 등 농수특산물 판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고흥군은 12일 “최근 군 통합브랜드 캐릭터 ‘노랭이’ 선포와 지역 온라인 쇼핑물 ‘고흥물’ 개장을 기념해 ‘고흥 농수

특산물 온라인 마케팅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채널(고흥군TV)과 온라인 화상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됐다. 온라인 행사 라이브영상은 고흥군 공식 유튜브 채널 ‘고흥군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특히 송귀군 군수가 직접 ‘노랭이’와 ‘고흥물’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송 군수는 “최근 캐릭터가 상품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노랭이’를 고흥군 통합마케터로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5년 이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율을 현재 2.8%에서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

흥물’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다운 것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수특산물을 비롯해 관광, 체험, 숙박을 포함한 고흥의 모든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새로운 통합마케터 ‘노랭이’와 ‘고흥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 84개(400여개 품목) 업체가 입점한 ‘고흥물’은 정식 오픈과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동안 신규 가입 5천 원 적립금·경품 증정, 15% 할인 쿠폰 지급, 전 품목 무료 배송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김두성기자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여수 32개소...오동도는 제외

여수시와 도시관리공단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2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전 8시

까지다. 대상은 노의 공영주차장 26개소와 노상 공영주차장 6개소다. 다수의 관광객 방문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오동도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했다. 이번 추석 연휴 1일 전부터 시행해 전 통시장과 상가 이용객·귀성객 주차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진선기자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행정 호응

고흥군, 찾아가는 들녘 간담회

고흥군은 12일 “집중 호우, 고온 등 잦은 이상 기온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농업 현장을 송귀군 군수가 직접 찾아가 작황 확인,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찾아가는 들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귀군 군수는 최근 벼 소식(드문모) 재배농가 방문에 이어 두원면 풍류리 소재 친환경(유기농) 재배단지(42ha/20호)에서 들녘 간담회를 가졌다.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품목·단체 별 간담회를 수시 실시해 농가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김두성기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비 24억 확보

고흥 풍양농협 공모 확정...추곡 수매 원스톱 처리

고흥군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공모에 풍양농협이 최종 확정돼 국비 7억2천만원 포함 총사업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생산 유통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능가 벼 판로 확보, 편익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풍양농협등 조합에 순환식 건조시설 30t 4기와 저장 시설인 사일로 500t 2기, 저온저장고 100평 1동, 지게차 1대, 벼 수매통 100개 등

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풍양농협만 건조저장시설(DSC)이 없었지만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벼 건조·저장시설을 구축, 대규모 추곡 산물수매 시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원료곡 변질 예방은 물론, 장시간 대기로 인한 지역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미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품질 고품질 생산과 노후 시설 현대화·브랜드쌀 생산 등을 위해 행정·농협·농민 협력을 통해 고품질이 우리나라 고품질 브랜드 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기자

‘섬섬여수 옥수수’ 상품 개발 효과

가공제품 다양화...청년·여성 판로 확대 주목

여수시는 12일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섬섬여수 옥수수 상품 개발 창업 지원으로 가공제품 다양화와 청년·여성의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한 카페에 가면 최모(23)씨가 개발한 옥수수 모양의 빵속에 옥수수 알갱이와 치즈가 들어가 있는 고소한 빵과 옥수수 식혜를 맛볼 수 있다. **<사진>** 웅천동에서는 박모(47)씨가 옥수수 알갱이가 툭툭 터지는 천연 발효 빵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다. 두 곳 모두 향토산업 육성 ‘여수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 일환으로 여수시의 상품 개발 창업 지원을 받은 곳이다. 여수시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



옥수수로 만든 콘(알갱이)과 분말을 활용해 옥수수 빵, 식혜, 라면, 쿠키 등 제품 개발과 상품화, 판매 홍보를 지원한다. 지난 7월 옥수수 상품 개발 창업 지원 계획을 공모해 1차 자격 요건 확인과 2차 현장조사 면담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최종 2명을 선정해 상품 개발 재료비, 기자재 등 1명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